

1 군대가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

19961125 월 아침말씀 화를 면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계8:10-13

어느 사람이 군대 간다고 하기에 “군대가서 성경 좀 많이 봐라.” 했습니다. “몇 번이나 볼까요?” 물기에 50번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면서 열심히 성경만 봤더니 40번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배타고 갈 때 엄청난 태풍이 부딪치게 될 입장이라 다 끝났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태풍이 다른 곳으로 딱 꺾어 가더라고요. “그 태풍은 내가 멈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태풍을 놔두었으면 미국의 도시도 때렸을 것인데 피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기도하니까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 정도 했으면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2. 군인들에게 하신 말씀

19980715 수 아침말씀(월명동숲속자연성전어머니집짓는곳)항상기뻐하라살전5:16

내가 오늘 군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잘 있었느냐? 언제고 군대에서는 충성해야 한다. 나와 같이. 그리고 군대에 있을 동안에 열심히 해서 사회에 나와서 인생 살 때에 군대에서 이렇게 살았노라고 부끄럼 없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 나와 같이. 하늘을 서운하게 하지 말고, 아쉬울 때 찾지 말고, 늘상 찾아라. 그러면 늘 기쁨이 떠나지 않으리라”했습니다. 편지를 매일 쓰는 사람이 있기에 “매일 쓰는 편지와 같이 그런 열의를 갖고서 인생을 산다면 실패하지 않으리라. 열심히 살아라. 내가 그렇게 살듯이”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그렇게 살듯이”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나는 나 닮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은 길을 가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19980719 주일 너는 내 것이다 사 43:1-3 월명동

나는 군인들에게 가끔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은 잘 있었냐? 나는 잘 있다. 이제 전국 순회가 끝났다. 이제 가을 순회로 넘어간다. 여전하게 일을 하고 있다. 내가 군대생활을 하라 때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을 것이다. 내가 충성스럽게 살다가 나온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다 나와라. 군대 갔다와서 이야기해도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해라. 일하기 싫어서 이리저리 숨어서 돌아다니는 야박한 군대생활을 하지 말고 충성을 다해서 살도록 하라. 내가 그렇게 살았다. 너희들도 그렇게 산다면 내 제자니라.”

3. 군 MS들에게 -1994년 10월 섭리세계 수록

군 MS들에게

군 관리자들을 통해 소식을 듣고 또 휴가나 댁밖 나오는 자들로부터 안부를 전해 듣지만, 그렇지 못한 영국들 때문에 정성 담긴 편을 들었다. 내가 군 생활을 하였기에 원히 그 심정을 아다. 가을이면 남자들의 마음이 설렌다고 하는데 고향 생각, 내 생각, 모두 섭리의 영국들 생각에 마음 설레는 줄 아다.

앞날의 상면을 생각하며 현실에 충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휴가나 댁밖 나오면 월명동에 와라. 나면이라도 끊여먹자.

축복식 '94 매듭에 바쁜 날을 보내 뿐이다. 편지하고 소식 전하여라. 모두 건강하고 신앙에도 열결하기 바란다.

정명석 총재

4. 군선교

하나님의 자연법칙따라 가을이 깊었다. 10월1 행사 청주 공성 운동장 2만명의 관중속에 싸여 가을 섭리체전을 무사히 마쳤다 국군의 날이라 너희 군에 매인

자들의 생각이 많이 낡다 행사가 커서 방송국에서 나뉘 뉴스 시간에 2번이나
보도했단다 우리 모임이나 언제든지 누가보아도 껌짝 늙네는 단체니까
내빈석에는 전군 참모총장이며 현국회의원도 참석하여 제대를 앞둔 군인들
마침 휴가차나뉘 모두 인사들하며 좋아하는 모습도...

나는 모든 행사 마치고 이곳 월명동에서 결혼축복식 행사 때문에 대기하고
있단다 이번 450쌍이다 어디서든지 자기 책임분담 열심히하여 자기성장을 먼저
철저히 시켜야된다

항상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잘못을 말고 행동하여 하나님을 준 시대의
가치회복과 시대 주인들이 되기 바란다

JMS 析 先生 95.10.

5. 군MS들에게

맛물이 소생하듯 섭리란 더불어 잘들 주품 가까이서 크다 때와 시기를 따라 천리나 멀리
떨어져 맡은의 주인들이 되느라 수고가 많은 줄 안다. 하나의 하늘앞에나 민족앞에 조건을
세우는 일이며 기간임을 알고 충성스럽게 미련없는 군생활을 하여야 된다. 나도 군에 있을
동안에 인생의 큰 기쁨을 깨닫고 배웠다. 고로 섭리사에 얼마나 큰 경험을 얻었는지 정말
크고도 큰 힘이 된다. 길을 딱으면 몸이 편하고 마음을 딱으면 심경이 편한법이다. 연달라
경험의 기간임을 알고 건강히 책임을 다하도록 번사에 기도하고 맡은을 상고하며 다투어
복음의 섭리인이 되기를 바란다. 위로우면 전도하고 힘들면 소망을 품고 월명동 많이
달라졌으니 그때 만나자. 析 總裁